

[ 종합·해설 ]

# 고건 “외부 선장 노릇 생각해 본 적 없다”

## “지지자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한 듯 與, 개방형 국민경선제도는 바람직”

고 건 전 국무총리의 본격적인 정치행보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고 건 총리는 13일 대학로에서 영화 ‘괴물’을 관람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지자들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지지자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집요한 질문에 이날도 특유의 간접회답으로 일관했지만 이전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간 대답으로 해석돼 관심을 모았다.

특히 그의 발언은 여당이 개방형 국민경선제를 공식화했을 뿐 아니라 신계륜 전 의원의 러브콜,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의 연대설 등 고 건 총리에 대한 구애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유망한 대권 주자의 한 사람이 시기가 무르익어 갈 즈음에 조만간 본격적인 정치행보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담은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가 이날 본격적인 정치행보에 뛰어든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지만 시기를 살피고 있다는 말을 되풀이했던 과거의 발언과는 다른 것이어서 의미있게 받아들여진다.

그는 오는 28일 출범시킬 예정인 ‘희망한국국민연대(희망연대)’가 본격적인 정치행보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는 데 대해 “희망연대는 정치의 품질개선을 위한 국민운동적 성격의 모임으로 정치적 결사체가 아니다”며 “정책분야 중심인 ‘미래와 경제’와는 상호보완적”이라고 설명했다.

고 건 총리는 또 최근 여야 정치권에서 자신을 같은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를 하는 데 대해서 “내게 기존 정당을 평가하고, 이쪽 저쪽에 서라는 것은 무리”라면서도 “양쪽 극단을 배제하고, 제정파를 초월해 실사구시적 실용주의에 뜻을 함께 하

는 사람들이 연대해야 한다”고 독자적 세력 구축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의 ‘외부선장론’에 대해서도 “내가 어느 특정정당의 선장론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말했으며 여당의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에 대해서도 “정당이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방법을 국민에게 개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특정정당이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에 개인적으로 호불호를 말할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또 “고 건 총리는 같이 가야 할 사람”이라는 열린우리당 신계륜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앞으로 정치발전 위해 기여가 있기를 바란다”고 덕담을 한 뒤 “서울시장 시절 신 전 의원과 함께 일을 했는데, 그런 수준에서 파트너 정도로 이야기한 것 같다”고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다.

고 건 총리는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해 “기본적인 원칙에 동의하지만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다”며 “정부가 2012년까지 추진하는 5개년 국방중기사업이 실질적으로 완성되는 시점은 파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 고이즈미, 8·15 야스쿠니 참배 강행할 듯

## “공약은 지켜야” 공언...개인 자격으로 한·일·대만 시민단체, 도쿄서 저지 시위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공언대로 오는 15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를 강행할 지 여부가 안팎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현지에서는 15일 오전 7시 참배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최근 연일 “(집권) 공약은 지켜야 한다”며 8·15 참배를 공언하고 있다. 일본 정치권과 언론은 고이즈미 총리가 참배강행을 위해 여론을 떠보는 등의 사전 정치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지난 2001~2004년 4차례의 참배시 연미복이나 전통의상인 ‘하오리 하카마’를 입고 신사 본전에 올라 제단에서 정식 참배했다. 방문록에는 ‘내가

총리대신 고이즈미 준이치로’라고 기재했다. 현화료는 사비로 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참배 때는 양복 차림이었고 본전에 오르지 않은 채 참배전에서 참배했다. 개인 참배의 색채를 풍겼던 것이다. 한국과 중국의 강력한 반발과 한 달 전 오사카고법이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참배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 등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현지 언론은 고이즈미 총리가 “본전에 올라 제단에서 정식 참배 할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참배를 “개인 소신에 따른 것”이라고 되풀이하고 있는 점에 비춰, 지난해 처럼 개인 참배의 형식을 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과 대만, 일본 시민단체 회원 등 500여명은 지난 11일 이후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저지하기 위한 촛불시위 등을 연일 도쿄에서 벌이고 있다. 이들의 시위는 15일까지 계속된다.

또 김희선, 유기홍, 임종민, 문화진 등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10명이 12일 야스쿠니신사를 방문, 신사 책임자를 만나 유족의 동의없이 합사된 2만 1천여명의 한국인의 합사취소 등의 요구를 담은 28개 항목의 질의서를 전달하고 군국주의를 고무하는 전향박물관인 유수관에서 현장조사를 했다.

일본 우익단체 회원들이 물려와 과격한 행동을 벌여려 했지만 경찰의 제지로 충돌은 없었다. 이들은 일본 정부에도 ▲야스쿠니신사 “개인 소신에 따른 것”이라고 되풀이하고 있는 점에 비춰, 지난해 처럼 개인 참배의 형식을 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 日 총리 야스쿠니 참배시 강력 대응

## 공식 항의 성명 발표키로

정부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오는 15일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강행할 경우 공식 항의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13일 “고이즈미 총리의 그간 행적을 보면 15일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강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이 경우 정부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는 등 일측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참배가 이뤄질 경우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총리가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행한 것은 과거의 침략 역사를 미화하는 것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강조했다.

이러 주한 일본 대사관 통해 정부의 입장을 공식 전달하는 등 다른 조치들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졌다. 이 당국자는 “지난 8일 일본을 방문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을 통해 8월15일의 신사 참배에 대한 우리 정부의 뜻을 사실상 전달했다”면서 “과거사에 대한 진정된 반성없이 양국간 원만한 미래 관계도 보장될 수 없다는게 정부의 기본 인식”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치권과 언론에 따르면 고이즈미 총리는 15일 오전 7시 ‘개인참배’ 형식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찾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고이즈미 총리가 다음달 물러나고 새 총리가 선출되는 점을 감안해 새로운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해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일측에 전달했다고 또 다른 정부 당국자가 전했다.

그는 “앞으로 한일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새총리로 거론되는 아베 신조 관방장관 등 ‘포스트 고이즈미’ 시대를 이룰 차기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를 총리자격으로 찾느냐 여부”라고 말했다.

【입دم기자 tuim@】

# 英 히드로 공항, 항공편 3분의1 취소

## 테러음모 적발 4일째

영국발 여객기 테러 음모가 적발된 지 나흘째 되는 13일 영국 히드로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의 3분의 1이 취소되는 등 혼란이 계속되

고 있다.

영국 공항당국인 BAA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추가 보안 검색으로 야기된 운항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BAA는 “이러한 혼란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승객들의 인내에 감사한

다”면서 “승객들은 공항에 오기 전에 항공편을 확인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알카에다와 연류된 테러범들이 영국발 미군행 여객기에 폭발물을 설치한 사실이 경찰에 의해 적발된 후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인 히드로 공항에서는 영국을 오가는 항공편은 물론 영국의 주요 항공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

# 신계륜 “고건은 우리편”

## 특사 앞두고 MBC 라디오 대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신계륜 전 의원은 지난 12일 고 건 전 총리에 대해 “고 건 총리는 과거 민주당 출신 서울시장이고 참여정부에 와서 초대총리를 지낸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진영에 서 있어야 하는 사람”이라며 “우리와 다르게 서 있지란 말이 가야 할 사람”이라고 밝혔다.

신 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반(反) 한나라당 입장에서 다음 대선을 고려한다면 고 건 총리를 매우 필요한 자원으로 간주하고, 같이 협력하고 나가야 할 사람으로 본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열린우리당의 완전 국민참여경선제에 고 건 총리가 참여할 가능성에 대해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지만 안될 경우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여당 내에서 모든 상황이 이뤄질지, 여당을 포함한 더 넓은 범주에서 이뤄질지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신 전 의원은 이어 “고 건 총리와 여당이 각자 길을 개척하되 대선 직전에 합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런 방법까지 포함한 여러 가능성이 있고 전부 안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신의 지역구였던 7·26 성북을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조순현 상임고문이 당선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이 당선된 것보다 훨씬 잘된 일”이라며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흐름이 있다는 것은 매우 유익한 신호이자 즐거움 일”이라고 말했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고건 前총리 '괴물' 관람 13일 영화 '괴물'을 관람하기 위해 서울 대학로 한 극장을 방문한 고 건 전 총리가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與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논란 확산

## 《개방형 국민경선제》

### 계파·출신지역별 이해득실 분주 “여권발 정계개편 신호탄” 예측도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차기 대선후보를 ‘오픈 프라이머리(개방형 국민경선제)’ 방식으로 선출키로 한 것과 관련, 여권 내외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계파별·지역별로 개방형 국민경선에 대한 시각이 엇갈리는 것은 이 제도가 정계개편을 전제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당 창당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참정연·신진보연대 등은 우리당을 중심으로 한 정계개편을 주장하고 있지만, ‘범민선 대연합’ 또는 ‘제3대연’을 주장하는 민평연·호남출신 의원들은 범 여권의 헤쳐모여를 주장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있으며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당원 참여 비율 등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놓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어 최종안 마련에 진통이 예상된다. 또 다시 갈등이 불거질 경우 여권 발 정계개편의 신호탄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처럼 계파별·지역별로 개방형 국민경선에 대한 시각이 엇갈리는 것은 이 제도가 정계개편을 전제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당 창당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참정연·신진보연대 등은 우리당을 중심으로 한 정계개편을 주장하고 있지만, ‘범민선 대연합’ 또는 ‘제3대연’을 주장하는 민평연·호남출신 의원들은 범 여권의 헤쳐모여를 주장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지붕·옥상슬라브 우레탄폼 방수전문!**

지붕 방수도 되고 단열도 되는 최첨단 신소재 **겨울철 보온, 난방비 절감! 지금 시공하십시오!!**

- 비가 세서 걱정하십니까?
- 여름에 더워서 자를 났습니까?
- 겨울에 춥습니까?
- 외관상 흉하십니까?
- 소음이 심하십니까?

한시공으로 **단열 수명을 늘기만 영구적수명방비 50% 절감효과**

■ 외장 : 기와지붕 스테이트지붕, 합석지붕, 스티브 옥상, 아파트 옥상, 평정지붕, 농협창고 등  
■ 내장 : 논사, 초사, 계사, 냉동창고, 저온창고, 체육관 건물, 지붕을 날 내 인테리어 가능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

**(주)태양주택개발 | TEL (062) 262-0606 / 262-0450**

**경찰의 꿈을 이루는 곳!**

**100% 합격률 김재규 경찰학원**

**합격의 전당**  
광주 김재규경찰학원이 노랑진의 합격 신화를 이어갑니다

**\*합격을 앞당기는 시스템 -매월 1일, 15일 개강**

- ①6개월회원제 / 1년 회원제
- 오전이론+저녁이론강의+오후실전문예풀이 모두 수강가능
- ②2개월 종합반
- 오전이론+저녁이론 강의
- 17개월 무료 동영상재강(회원제)
- 정독서실, 고시원 할인 혜택
- 매주 토요일 기초영어강 수강
- 매월 실전모의고사 실시(OMR카드 성적처리-개인성적표 제공)
- 전용자습실 사용가능
- 사들함 무료사용 가능
- 실용화! 신선택 맞춤 수업
- 매일 실전모의고사 실시(OMR카드 성적처리-개인성적표 제공)

**\*차별화 된 전문 교수진**

경찰학개론 김재규 교수	형법 조태업 교수	형사소송법 윤경근 교수
수사 오수영 교수	영어 오순아 교수	영어 정보열 교수

**합격의 영광 뒤에는 김재규경찰학원이 있습니다**

**김재규경찰학원**  
Kim Jae Gyu Police Academy  
☎(062)236-3112 **전남여고 후문 앞**  
www.police3112.net

**공무원 전문강좌 수시접수중**

- 첫진도 시작반(이론반) 8월 1일 (광주유일 B반) **개강**
- 문제풀이 8월 1일(서울직 선관위 대비) **매월**
- 경찰직 이벤트 무료교재(138000), 10월 1일 시험대비 문제풀이 무료 **1일**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 222-4560

**상위권 대학면접 전문 - 김영**

**호남유일 의치의학전문대학원대비강좌**  
MEET/DEET 대비반 개강

**일반, 학사, 사대면접** **약대, 한의대면접**  
편입대비 영어 기초반 **생물, 화학, 한문, 한의학**

**교육대편입대비 - 김윤신 교육학**

**김영대학면접학원** 광주동부경찰서 **개강: 8월 1일 ☎ 227-8088**

**꼭내영고시학원**

“교원임용 강좌에도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초등교사, 중등교사, 보전교사, 유치원교사, 전문상담교사, 평생교육사 임용시험을 구분하고 다양한 학생들의 학습욕구를 해결하려면 우선 다양하고 집요한 협력리얼링과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 및 학생규모를 개인 역량이 갖추어져야 하고, 비로 우위의 고교 교사들이 선결과제로 담당해야 합니다. 꼭내영 교육학의 교수진은 하루, 이틀에 구성된 것이 아니라 수년간 수많은 현직자들을 배출한 높은 합격률로 입증된 최고 강사진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꼭내, 교원임용시험은 보수적인 최고여야 돼”

**문제풀이반 개강 9월 2일 (현재 예약접수중)**

- 교육학/학내영 선생
- 국어/회병해 교수
- 국어교육론/미운용 교수
- 영어/송옥 교수
- 수학/임대성 교수
- 과학교육론/정영민 교수
- 물리/장영민 교수
- 화학/이영철 교수
- 생물/김지옥 교수
- 지구과학/박명순 교수
- 사회교육론/김형수 교수
- 일반사회/김영수 교수
- 체육내용학/김용호 교수
- 체육교육론/조남용 교수
- 미술/김성희 교수
- 음악/박성진 교수
- 유아교육과정/임미선 선생
- 초등교육과정/위재권 선생
- 전국 최강의 강사진만을 모았습니다.

수강문의 : 062-529-0090 전남대 정문앞(신안사거리) http://www.naeyoung.com

**에듀뷰넷**

교원임용 동영상 강의

http://www.eduview.net

생각한 한여름을 위하여는 시가 권하는 장소에 시 인제드나 수강가능!

전국최고의 유명강사진 총집합

교육학 유아교육	미술
과학영	임미선
국어 영어	수학
최명현	송 옥
체육	공통과학
김종호	정영민
김영수	김영수

현재 신항리 강의중  
문의 : (02)816-1646